

■제1독서: 집회서의 말씀입니다. 27,30—28,7

30 분노와 진노 역시 혐오스러운 것인데도 죄지은 사람은 이것들을 지니고 있다. 28,1 복수하는 자는 주님의 복수를 만나게 되리라. 그분께서는 그의 죄악을 엄격히 해아리시리라. 2 네 이웃의 불의를 용서하여라. 그러면 네가 간청할 때 네 죄도 없어지리라. 3 인간이 인간에게 화를 품고서 주님께 치유를 구할 수 있겠느냐? 4 인간이 같은 인간에게 자비를 품지 않으면서 자기 죄의 용서를 청할 수 있겠느냐? 5 죽을 몸으로 태어난 인간이 분노를 품고 있으면 누가 그의 죄를 사해 줄 수 있겠느냐? 6 종말을 생각하고 적개심을 버려라. 파멸과 죽음을 생각하고 계명에 충실하여라. 7 계명을 기억하고 이웃에게 분노하지 마라. 지극히 높으신 분의 계약을 기억하고 잘못을 눈감아 주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화답송 ◎ 주님은 자비롭고 너그러우시며 분노에는 더디시나 자애는 넘치시네.

-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내 안의 모든 것도 거룩하신 그 이름 찬미하여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그분의 온갖 은혜 하나도 잊지 마라. ◎
- 네 모든 잘못을 용서하시고, 네 모든 아픔을 없애시는 분. 네 목숨을 구렁에서 구해 내시고, 자애와 자비의 관을 씌우시는 분. ◎
- 끝까지 캐묻지 않으시고, 끝끝내 화를 품지 않으시네. 우리를 죄대로 다루지 않으시고, 우리의 잘못대로 갚지 않으시네. ◎
-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은 것처럼, 당신을 경외하는 이에게 자애가 넘치시네. 해 뜨는 데서 해 지는 데가 먼 것처럼, 우리의 허물들을 멀리 치우시네. ◎

■제2독서: 사도 바오로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14,7-9

형제 여러분, 7 우리 가운데에는 자신을 위하여 사는 사람도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사람도 없습니다. 8 우리는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입

니다. 9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것은, 바로 죽은 이들과 산 이들의 주님이 되시기 위해서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 알렐루야.

■복음: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8,21-35

21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다가와,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까지 해야 합니까?” 하고 물었다. 22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곱 번이 아니라 일흔일곱 번까지라도 용서해야 한다. 23 그러므로 하늘 나라는 자기 종들과 썴을 하려는 어떤 임금에게 비길 수 있다. 24 임금이 썴을 하기 시작하자 만 탈렌트를 빚진 사람 하나가 끌려왔다. 25 그런데 그가 빚을 갚을 길이 없으므로, 주인은 그 종에게 자신과 아내와 자식과 그 밖에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명령하였다. 26 그러자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제발 참아 주십시오. 제가 다 갚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27 그 종의 주인은 가엾은 마음이 들어, 그를 놓아주고 부채도 탕감해 주었다. 28 그런데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백 데나리온을 빚진 동료 하나를 만났다. 그러자 그를 붙들어 목살을 잡고 ‘빚진 것을 갚아라.’ 하고 말하였다. 29 그의 동료는 엎드려서, ‘제발 참아 주게. 내가 갚겠네.’ 하고 청하였다. 30 그러나 그는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다. 그리고 가서 그 동료가 빚진 것을 다 갚을 때까지 감옥에 가두었다. 31 동료들이 그렇게 벌어진 일을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죄다 일렀다. 32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들여 말하였다. ‘이 악한 종아, 네가 청하기에 나는 너에게 빚을 다 탕감해 주었다. 33 내가 너에게 자비를 베푼 것처럼 너도 네 동료에게 자비를 베풀었어야 하지 않느냐?’ 34 그러고 나서 화가 난 주인은 그를 고문 형리에게 넘겨 빚진 것을 다 갚게 하였다. 35 너희가 저마다 자기 형제를 마음으로부터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의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영성체송:** 하느님, 당신 자애가 얼마나 존귀하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당신 날개 그늘에 피신하나이다.

■ 공지사항

■ 멕시코 과달루페 성모 발현지 순례자 모집

-일시: 2027년 1월 18일 (월) -22일 (금)

-경비: 1,600-1,800불(순례비) + 항공료 별도

-문의: 남현옥 (엘리사벳) & 김은경 (파울리나)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게시판에 9월 20일까지 종이에 기입해 주세요.

■ 한가위 위령 미사 및 본당 야외 미사 안내

-일시: 9월 20일 (주일) Fort Harrison State Park, 오전 11시부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자연 속에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미사를 봉헌하고 친교의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이때 다가오는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먼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 세상을 떠난 우리의 조상, 부모, 형제, 이웃들을 기억하고 기도도 합시다.

이에 위령미사를 봉헌하실 분은 미리 미사 예물 봉투를 작성하여 교무금함 또는 제대부 봉사자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사 중 보편지향기도 끝에 연도도 바칩니다

* 살아있는 이를 위한 미사 (생미사) 도 봉헌 가능합니다.

■ 청년성서모임 봉사자 및 그룹원 모집 (26년 가을)

대상: 주님의 말씀에 관심있는 모든 청년 신자

과정: 창세기 > 탈출기 > 마르코 > 요한

(첫 신청자는 창세기 과정부터 시작해요)

기간: 26년 9월 27일 (주일) 까지 | QR코드 참조

문의 및 신청: 정원준 막시밀리안 (630-276-8864)



■ 퍼듀 한인公所 야외 미사

일시: 9월 26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오후 3시까지

장소: 1301 Happy Hollow Rd, West Lafayette, IN 47906 Shelter 1

September 13, 2026 연중 제 24 주일



천주교 인디애나폴리스 한인 성당

Korean Catholic Church of Our Lady of Holy Rosary in Indianapolis

■ 전례 봉사자

	연중 제24주일(9/13)	연중 제25주일(9/20)	연중 제26주일(9/27)
해설	이상진 프란치스코	최낙현 미카엘	정석훈 마태오
독서	이숙 서예슬	정원준 최아영	이인서 박재민
복사	황시윤 바오로 이지오 미카엘	류지수 엘리사벳 엄유하 유스티나	차루아 미카엘 강예지 가브리엘라
반주	최아영 아녜스	한혜경 아녜스	공승윤 수산나
제대	공승윤 수산나	안소희 클로틸다	곽동화 소화데레사
예물	엄유하 정휘인	엄유상 릴리안	이지오 엄유하

*독서 순서 관리: 김은경(파울리나) & 장재원(베드로)

■ 우리들의 정성 (09/06/2026)

■ 미사 봉헌금: \$733.00 | ■ 교무금: 신창식 (9), 이영순 (9), 장선애 (9-10), 장재원 (8-9), 최교균 (9-10), 최낙현 (9-10), 최아영 (1-6), 전옥진 (IU)

■ 우리 공동체 9월 축일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공예린 (율리아 | 2일), 신창식 (그레고리오 | 3일), 이복남 (로사 | 4일)

심민서 (마더 테레사 | 5일), 서예슬 (이피제니아 | 21일)

정석훈 (마태오 | 21일), 문석민 (리노 | 23일), 류지수 (엘리사벳 | 23일)

대천사들 (29일): 강예지 (가브리엘라), 강현옥 (미카엘라), 공지나 (가브리엘라), 김수미 (가브리엘라), 노미경 (미카엘라), 문선영 (미카엘라), 박의현 (가브리엘), 박한주 (미카엘), 박한준 (라파엘), 엄영준 (미카엘), 이지성 (미카엘), 이지오 (미카엘), 전수진 (라파엘라), 정명호 (미카엘), 차루아 (가브리엘), 최낙현 (미카엘), 최민해 (라파엘), 황이수 (미카엘)
남고은 (소피아 | 30일), 남건우 (예로니모 | 30일), 문경아 (소피아 | 30일)